

한국 연안 혼획 밍크고래, *Balaenoptera acutorostrata*의 생물학적 해석

김장근, 손호선, 박영철, 정의철
국립수산과학원, 해외자원과

혼획 (by-catch, entanglement)은 목표 어종을 잡도록 허가된 어구에 고래가 얽히는 것을 말한다. 국제포경규제협약의 개정관리방법 (Revised management procedure, 1994)에서는 혼획을 고래류의 비자연사망으로 정의하고 자원평가와 포획쿼타 소진에 포함시키고 있다. 혼획의 관리를 위한 국내 규정으로는 『해양수산부의 고래포획금지이행지침』이 있다. 규정에는 그물에 얽혀 살아있을 때는 최선의 회생의 조치를 취하고 죽었을 경우, 동 지침의 혼획·좌초고래처리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분포, 회유하는 고래는 조사할 수 있는 시간과 해역범위의 제한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혼획은 연중 어느 곳이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용한 생물학적 정보를 얻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6년부터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한 혼획 밍크고래를 대상으로 그 생물 현상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1996년부터 2001년간 우리나라 전국 연안에서 발생한 밍크고래의 혼획 일시, 위치, 체장 자료이며, 과거 포획자료의 체장 조성과 혼획 밍크고래의 체장 조성을 비교하였다. 기존 연구 및 국제포경위원회의 북서태평양 밍크고래의 기존적 분포와 회유패턴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1996~2001년간 연도별, 지방별, 월별 밍크고래의 혼획량의 추이는 1996년 129두, '97년 81두, '98년 45두, '99년 62두, 2000년 66두, 2001년 148 두로 월 2~12두의 범위였으며, '96년 11월~'97년 2월간, 2001년 1월~6월간 월 20~30두가 혼획되어 10월부터 익년 1월에 높은 빈도를 나타냄으로서 북서태평양 밍크고래의 일반적 회유특성과 차이를 나타내었다. 혼획 밍크고래의 체장 분포는 4-6m 범위로 미성숙 개체였으며 갓 출생한 개체도 나타났다. 고래는 북서태평양의 광범위한 수역에 걸쳐 서식하는 종이므로 광범위 해역범위의 회유패턴 및 혼획 변동 원인규명이 필요하며, 국지적인 수온과 먹이의 원인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추가적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